

대한양계협회 소식

종계 20% 감축 결의 - 전국 부화인 대회에서 -



최근 양계업계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대 불황을 극복해 보고자 11월 9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는 전국 부화업자 회의가 개최 되었다. 지난 10월 24일부터 임시 방편으로 축협에서 수매비축이 시작되어 다소 육계가격이 오르는 듯 했으나 지난 3월 이후 생산비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에서 허덕이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11월 1일을 기해 사료가격이 평균 12%인상되어 육계 생산비는 무려 50원이나 인상되었다. 이 여파는 바로 부화장에 미쳐 부화

장이 휴업 내지 폐업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는 앞으로 암담한 양계분야를 어떻게 헤쳐 나갈까 하는 묘책을 모색코자 회의가 개최된 것이다.

먼저 이 상운 회장을 인사말에서 우리 부화인은 다 같이 힘을 합쳐 이 불황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역설했다.

토론에 들어가 부화인들은 종계를 강제 수매했으면 좋겠다는 견해와 종계를 양계협회에서 추천해 주고 있는 만큼 수입추진을 제한하여 종계를 조절해 달라는 견해도 있었으나 수입자유화, 물결을 타고 있는 이때 이것은 어찌할 수 없으며 양계인 스스로 입추조절과 부화인의 입란조절로 이 난관을 타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82년, 83년의 종계 숫자, 내년초 사료가격인상 등을 감안할 때 종계의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만큼 부화인은 스스로 종계를 감축하는 길만이 살 길이며 양계업계의 불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고 너나 할것 없이, 20% 이상씩 물량을 감축하자고 다짐했다.

한편 협회에서는 이 종계감축운동 호소문을 전부화장 및 종계장에 배포하기로 하였다.

**전국 초생추 감별사시험
및 경진대회**

-응시자, 관계자 등 120여명 참석-

전국 초생추 감별사시험 및 경진대회가 시험 응시자, 감별학원장, 관계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11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본회 감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채인)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시종 임덕성사무국장 정채인 위원장이 참관하여 진행상황을 살폈으며, 본회 전직원이 참가하였다.

오전에 시작된 갑종시험에는 59명이 응시하여 33명이 합격하였고, 오후에 실시된 고등시험에는 16명이 응시, 2명이 합격하였다.

한편 시험종료후에 개최된 감별사 경진대회에서는 천호부회장의 김 윤환씨가 100%의 정확률로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준우승은 정 유범씨에게로 돌아갔다.

이날 행사의 경과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감별사시험

〈갑종시험〉

경과 : 8명 1개조로 실시

산란계 초생추 200수 감별시간 18분

정확률 97% 이상

결과 : 33명 합격(김 기화 外)

〈고등시험〉

경과 : 8명 1개조로 실시.

초생추 육계 200수 및 산란계 300수 감별.

100수당 제한시간 7분

매 100수당 정확률 98% 이상.

결과 : 2명 합격(방 영숙, 조 병필)

◎ 감별사 경진대회

경과 : 산란계 100수 감별

감별시간과 정확률로 순위판정

결과 : 수상자 2명

우 승 ; 김윤환(천호부회장)

4분 31초 완료, 정확률 100%

준우승 ; 정유범(천호부회장)

3분 31초 완료, 정확률 98%

시상식 ; 황인옥 전무

수상자에게 우승기, 트로피, 표창장 및 부상 전달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임회안내

본회 입회절차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아직도 입회하지 아니한 양계인은 이번 기회에 빠짐 없이 입회하여 양계산업발전에 힘을 모읍시다. (회원자격 및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관을 찬동하는 자로써 일반회원, 단체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1. 일반회원

가. 부화회원: 허가를 받아 부화업을 경영하는 자.

나. 종계회원: 등록을 필하고 종계업을 경영하는 자.

다. 채란회원: 채란업을 경영하는 자.

라. 육계회원: 육계업을 경영하는 자.

마. 감별회원: 초생추 감별사자격증 소지자.

2. 단체회원: 법인, 조합 및 기업양계업자 또는 양계단지(계우회 포함)

3. 특별회원: 닭을 전공으로 연구하는 학자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자.

위의 회원자격을 가지고 본회에 입회코자 하는 사람은 본회에 비치된 소정의 입회원서와 △일반회원은 입회비 2만원, 회비 2만원, △단체회원은 입회비 10만원, 연회비 10만원, △특별회원은 입회비 2만원, 회비 1만원을 납부하시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입회가 됩니다.

1983. 12. 1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

11월 채란분과위원회 개최 - 효율적 구서방법에 대한 세미나도 -



△ 11월 채란분과 위원회

11월 채란분과위원회가 춘천, 대구지역 등지에서 참석한 가운데 지난 14일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회의에 앞서 열린 세미나에서 김 광수(한국바이엘화학 학술부)는 「양계장에서 효율적인 구서방법」에 관해서 슬라이드를 통해 설명했다.

그는 쥐가 세계 전식량의 1/4을 없애고 있으며 이의 피해를 막는다면 굶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종 질병전파, 건물파괴 등 그 피해가 극심하다고 지적하는 한편 쥐의 생태와 습성을 자세히 설명했다. 쥐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서식환경의 제거, 방서시설, 포서기구, 천적에 의한 구서 등을 제시했으며, 살서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효과적이고 편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인옥전무는 검정소기공식, KBS-TV 제란 방송 협조, 제균혈청검사결과, GP센타협의, 부화인대회, 초생추 감별사시험 및 경진대회, 풍년제 참가 등 협회주요업무를 보고했으며, 현 난가고시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토론했을 것을 요청했다.

안건토의에서는 배합사료 구입문제, 난가고시

문제, GP센타설치 문제 등이 주요의제로 다루어졌다. 사료의 경우 내년부터는 사료곡물의 안정기준가격 철폐로 가격인상과 구입선이 다양해질 전망이며, 사료구입이 흑자경영의 관건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 현재 난가고시는 몇차례에 걸친 상인과의 대화로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바 앞으로도 상인과의 대화를 계속한다면 덤핑행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GP센타 설치문제에 있어 잘못하면 우리 양계산업이 위탁사육형태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고 많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의 방지를 위해서는 대군업자를 필두로 한 생산자의 단결로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서 생산자 모두가 조합에 가입하여 GP센타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밖에도 대군업자 10여명이 공동출자하여 서울시에 공판장을 30개 정도 설치한다면 가격안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충남지부 현판식

- 11월 12일에, 본회 박부회장.

지부 임직원, 회원 참석 -



본회 충남지부(지부장 이 전남)는 지난 11월 12일에 박 준영부회장, 충남지부 임원 및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충남지역 양계인의 단결과 이익도모를 위해 지난 8월 창단 결성대회를 거쳐 9월 본회 이사회의 승인 후 정식 발족된 충남도지부는 이로써 명실상부한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한편 현판식이 끝난 후 박 준영부회장과 지부 임원들은 협회활성화와 양계산업의 불황 타개에 대한 공동 관심사를 논의하였다.

일본 양계시찰단 출국

- 일본 양계업계, 도계장, 양계산업전시회등 시찰참여 -



△ 출발직전 시찰단의 모습, 김포공항에서

브로일러 시찰단이 지난 11월 28일 오전 김포공항을 출발, 장도에 올랐다.

육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일본의 육계 유통구조를 시찰, 견학코자 대군양계업자 및 도계장 경영자들로 구성된 이번 시찰단은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큐우슈에서 열리는 양계 전시회 참관을 시작으로 일본 양계업계, 도계장 및 도계유통업계 등을 시찰하며, 브로일러 생산 유통의 계열화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도 겸하게 된다.

이번 시찰로 그동안 계속 추진되어 오던 우리나라의 유통체제의 확립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회는 이번 시찰단 구성을 위하여 지난 8월부터 준비하여 왔었다.

임 덕성사무국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시찰단의 시찰일정 및 참가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일 정 ◇

- 11월 28일 : 서울출발, 시모노세키 도착
- 29일 : 하야시가네 축산 종계장, 도계장 시찰
- 30일 : 제12회 전구주 양계전시회 참관 및 자료수집
- 12월 1일 : 후꾸오까, 구마모도 계열화 농장 (60만수)시찰
- 2일 : 도하구쵸 농협조합 CC 육계농장 시찰
- 3일 : 돗토리 도계장(양계시설 및 도계 작업, 도계유통)방문
- 4일 : 대판 에그나르 기계제작소, 교또, 오히라(GP센터, 닭고기 유통)
- 5일 : 교또 출발, 동경착
- 6일 : 노자와구미 본사방문
- 7일 : 동경(휴식)
- 8일 : 동경발, 서울착

◇ 참가자 명단 ◇

- 임덕성 (본회 사무국장;인솔자)
- 신정일 (구량랜드 대표;육계)
- 이환생 (신기농장 대표;육계)
- 이영준 (대림농장 대표;육계)
- 조동호 (신미식품 대표;도계장)
- 전영찬 (신미식품 부사장;도계장)
- 정성준 (서호물산 전무;도계장)
- 남두희 (본회 편집과장)

육계 생산자 월례회
- 사료의 품질저하도 새로운
문제로 제기돼 -



△ 11월 육계생산자 월례회

제11차 육계 생산자 월례회가 지난 11월 28일 오후 2시 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한국 바이엘 화학 학술부에 근무하는 김 광수씨의 「양계장에서 효율적인 구서방법」이란 제목의 seminar가 있었다.

세미나는 쥐의 종류, 생태, 쥐에 의한 피해, 구서방법 등에 대해 슬라이드를 병행한 강사의 설명으로 전개 되었는데, 이날 참석자들은 쥐에 대한 피해 및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계속하여 진행된 월례회에서는 황 인옥전무의 업무보고에 이어 전망검토에서 전국적인 육계값은 600~650원 이고 초생추 가격은 30~150원으로 차이가 심하며 입추는 많이 줄어드는 것 같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전망은 11월 1일 사료가격 인상으로 생산비가 kg당 50원 이상 인상되어 1,000원을 웃돌고 있으며 내년초 또 다시 사료값 인상을 감안할 때 참으로 암담하며, 차라리 절망적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내년 2~3월까지의 전망이 좋지 않은

데 이것을 극복하는 첫 단계가 육계 전기사료 생산량을 18,000M/T 이하로 끌어 내려야만 육계가격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고, 참석자들은 스스로 생산량을 대폭 줄이는 한편 입추를 금지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한편 육계가격이 계속하향세인 가운데 최근의 사료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생산자들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이의 정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 신간 안내 ●

「肉鷄飼育要論」, 오 세정著, 선진문화사刊, 건국대 오세정교수에 의해 11월 25일자로 발행된 이 책은 '브로일러 생산기술'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데, 브로일러의 육종, 사육실태, 육성요령, 위생, 도계유통 등 사육 전반에 대하여 실제사육에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자세히 다루고 있다. 또 부록으로 닭의 주요질병 예방 및 치료, 방역프로그램, 18개 가축약품사 제품등을 소개하고 있다.

4·6배판, p346이며 본회로 연락하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778~8103, 752~3571)

가금 인플루엔자 발생

미국 펜실바니아 지역에서 병원성이 강한 가금 인플루엔자가 발생, 미농무성 동물 검역소에서 특별긴급사태를 발령했다.